

## Hana Market Weekly

# 달러/원·엔·유로환율·금리·주식

자금시장영업부

2024. 9. 19

# 주간 달러/원 동향(9/9~9/13) 및 전망



## 주간 달러/원 동향

- 주초, 미 8월 비농업 취업자 수가 예상치를 하회했으나 연준 위원들의 금리인하 폭 언급 부재에 빅컷 전망이 후퇴하면서 환율은 10원 넘게 상승하며 출발. 이어 연준 금리인하 기대의 재조정으로 인한 달러 강세에 상승했으나 고점 인식에 따른 수출업체 매도물량 유입에 1,340원대 초반에서 상단 제한. 중반, 미 대선 후보 토론에서의 해리스 후보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BOI 정책위원의 매파적 발언 등에 달러 약세 나타나면서 하락 전환. 후반, 미 8월 근원CPI가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으나 뉴욕증시 기술주 강세에 힘입은 국내 증시 외국인 순매수 영향 속 추가 하락. 이어 주 후반, 티미라오스 WSJ 기자의 50bp 인하 가능성 제기와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의 빅컷 주장에 약달러 나타나면서 1,320원대로 하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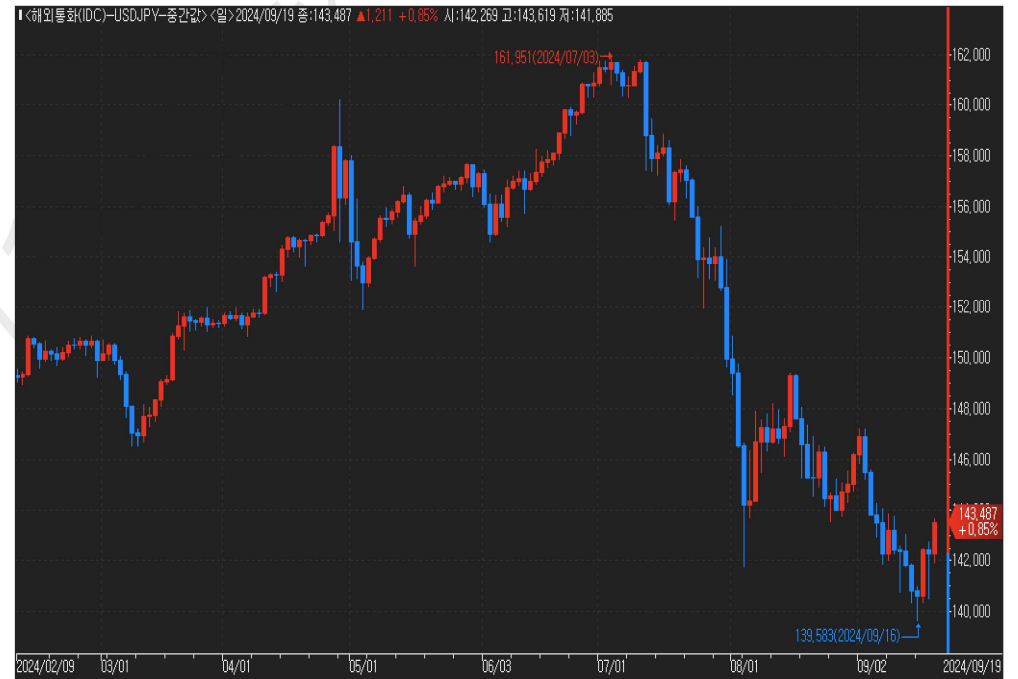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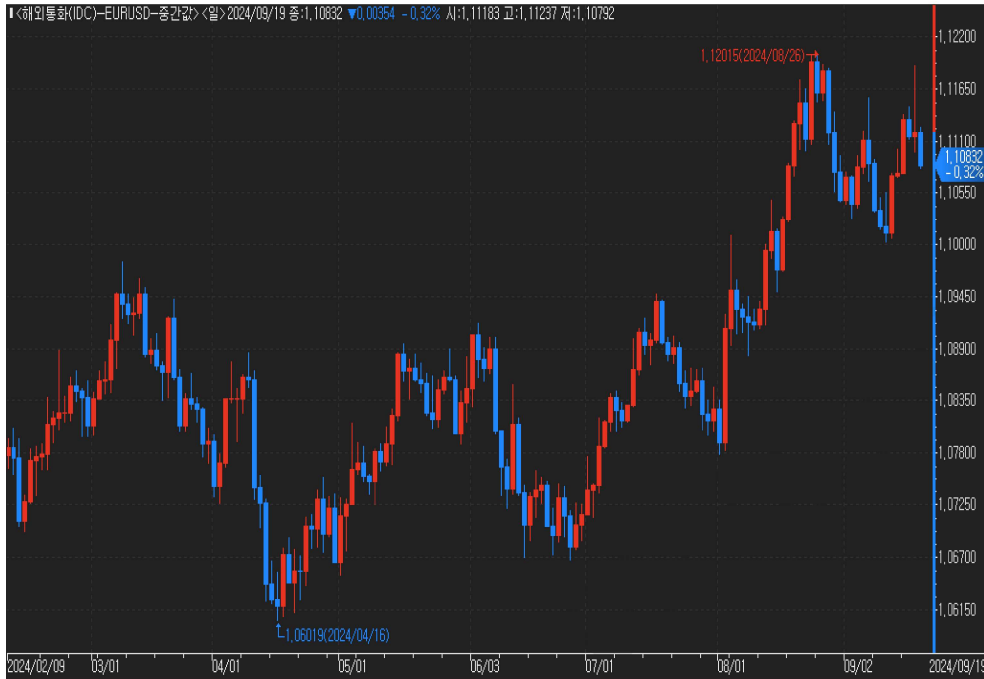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337.0	1,345.6	1,326.8	1,329.5	-7.5

## 달러/원 전망

- 연준 9월 통화정책회의 ‘빅컷’ 결정이 달러 인덱스 하방 압력에 전반적 영향이 작용할 전망  
 - 다만, 그간 시장의 ‘빅컷’ 전망 부합에도 파월 의장의 차후 인하 시점에 대하여서는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발언이 매파적으로 작용한 측면 고려 시 달러 인덱스 추가 약세는 제한될 것으로 예상  
 - 그럼에도 향후 원화 방향성은 점진적 강세에 놓일 것이란 전망의 수출업체 달러 매도 강화 영향 반영 등으로 1,320원대로 낮춰질 것으로 전망

예상거래범위
1,320원 ~ 1,335원

# 엔·유로화 동향 (9/9~9/13)



## 유로화 동향

- 주초, ECB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완화적 스탠스를 보일 것이란 전망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로화는 약세로 출발. 이어 시장 예상에 부합한 독일 8월 소비자물가지수 데이터를 확인 후 ECB의 추가 금리인하 전망에 재차 무게가 실리면서 약세 지속
- 중반, ECB가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예금금리를 25bp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는 측면이 추가 약세를 견인
- 후반, 신중한 정책 기조를 강조한 라가르드 ECB 총재 발언과 닉 티미라오스 기자의 연준 빅컷 가능성 제기에 달려 대비 강세로 전환. 이어 주 후반, 라가르드 ECB 총재가 12월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더 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의 50bp 인하 주장으로 연준 빅컷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면서 추가 강세 흐름 속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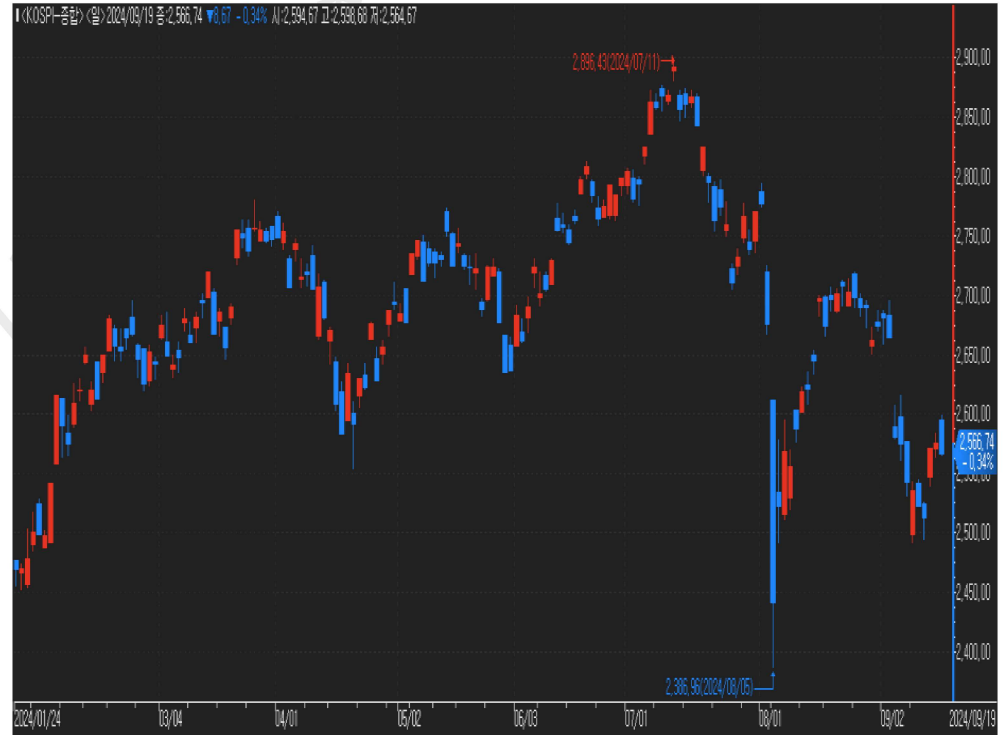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1086	1.1102	1.1002	1.1076	-0.0010

## 엔화 동향

- 주초, 일본 2분기 GDP성장률이 0.2%p 하향 수정된 측면을 반영하며 엔화는 약세 출발. 이어 주요국의 원유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와 미 국채금리 하락에 강세로 전환
- 중반, BOJ 정책위원이 경제와 물가가 예상대로 움직일 경우 통화완화 수준을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하는 등 매파적 기조를 드러낸 영향으로 강세
- 후반, 추가 긴축을 지지한 타무라 BOJ 이사의 발언이 더해지면서 엔화는 추가 강세를 시현. 이어 주 후반, 전직 연준 관계자의 50bp 금리인하 주장에 따른 연준 빅컷 기대감을 반영한 달러 약세와 미 국채수익률 하락에 140엔대까지 강세 보이며 마감

주간시가	주간고가	주간저가	주간종가	주간등락
142.3	143.8	140.3	140.8	-1.5

# 국고채 금리 및 주간 증시 동향 (9/9~9/13)



## 주간 국고채 금리 동향

- 주초, 미 8월 고용보고서 상 비농업 고용지표가 시장 예상 하회한 가운데 뉴욕 연은 총재 금리인하 지지 발언에 따른 미 국채금리 하락에도 대내적 수급상 국채선물 만기를 앞둔 수급 경계감 등으로 국고채 금리는 상승 출발. 이어 전일 국고채 시장 약세가 일부 되돌림되며 금리 하락 전환
- 중반 들어, 간밤 국제 유가 급락에 미국채 금리 하락하며 국고채 금리도 이를 추종. 여기에 미 대선 토론회의 해리스 후보의 선방 평가를 반영하는 국면 시현
- 후반 들어, 미국 8월 CPI가 소폭 시장 예상을 웃돈 영향 속에 한은 최근 시장금리의 과도한 기준금리 인하 반영 발언 등의 매파적 영향에 상승 전환 후, 주 후반, 추석연휴 기간 연준 통화정책 '빅컷' 기대감 강화 속에 외국인 국고채 매수 강화되며 국고채 금리는 급락 마감

## 주간 증시 동향

- 주초, 고용보고서 발표 이후 글로벌 증시 하락 영향 반영하며 출발한 코스피는 악재 소화 과정에서 저평가 메리트 부각 등으로 낙폭 만회 흐름 시현. 이어 뉴욕 증시의 기술주 강세 등에도 주요 이벤트들에 대한 경계감 강화 등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 강화되며 하락 추세 지속
- 중반 들어, 미 대선 토론 해리스 후보 판정승의 평가에 이차전지 업종 자금 유입 등에도 BOJ 당국자의 추가 긴축 언급 영향 속 외국인 투자자의 대규모 매도 강화 등으로 7거래일 연속 하락
- 후반 들어, 지난 미국 고용보고서와 CPI 발표 이후 연준 빅컷에 대한 기대가 약화되었음에도 전일 뉴욕 증시의 기술주 강세에 따른 국내 반도체 업종 상승 동력 등으로 8거래일 만에 반등세 전환 후, 주 후반, 연준 비공식 대변인의 9월 FOMC에서의 빅컷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킨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등으로 강보합 마감 시현